

동정

- 회 원 사
- 관련기관

한국정보통신

지방세 카드 납부시스템 개발

한국정보통신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기도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은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이달말까지 의정부시에서 시범 운영하며 오는 12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동차세에 한정된 이 시스템을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납세자는 지방세 수납처인 의정부시 소재 은행, 동사무소에 납입통지서를 제시하고 한국정보통신에서 설치, 운영 중인 카드조회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은 3~18개월까지 할부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가능한

카드는 BC, LG, 외환, 삼성, 신한, 다이너스 등이라고 밝혔다.

데 이 콤

개인신용조회 서비스 실시

통신을 통해 개인의 신용상황을 조회해 부실채권, 요금체납, 카드도용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데이콤은 11월 19일부터 국민카드, (주)한국신용평가 등과 함께 국민카드 이용자가 금융에 관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직링크 개인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데이콤의 전자금융서비스 매직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01420망을 통해 곧바로 「자기신용정보」, 「신용거래내역」, 「불량거래내역」, 「서비스조회 현황」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매직링크, 통신소프트웨어로 01420에 접속한 후 「개인신용정보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요금은 카드사 수수료를 포함, 회수에 관계없이 하루 1천원으로 현재 신용 정보기관의 정보이용료 3천원보다 저렴하다.

데이콤은 이 서비스를 11월말까지 국민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며 12월부터는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서비스 이용대상도 모든 카드사와 은행 이용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콤은 내년부터 PC통신 천리안을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SK 텔레콤

청소년 지킴이 집 운영

SK텔레콤은 학교 주변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지킴이 집」 및 「학교폭력방지 지킴이 보험」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청소년 지킴이집은 이 회사 지점 및 대리점 등에서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폭력등의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 긴급 피난처로 이용되고 지킴이 보험은 012무선호출에 신규가입하는 만 17세이상의 청소년이 폭력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이다.

현대정보기술

현대전자 IC카드사업부 통합

현대정보기술이 현대전자산업의 IC카드사업부를 이관받아 IC카드 시스템통합(SI)시장에 신규로 참여한다.

현대정보기술은 최근 현대전자의 IC카드사업부 이관협의를 끝내고 늦어도 이달안으로 관련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전자의 IC카드사업부의 영업과 SW개발부분 인력 20여명이 현대정보기술 IC카드 SI사업팀으로 통합운용될 전망이다.

현대정보기술이 현대전자로부터 IC카드사업부를 이관받기로 한 데는 현대전자가 자체 전문인력이 없어 SI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데 그룹차원에서 SI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C카드 SI시장이 내년을 기점으로 주민증카드사업과 금융권사업 등을 중심으로 본격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IC카드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을 비롯해 대우정보시스템, 기아정보시스

템 등 대형 SI업체와 동성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등 IC카드전문 SI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통신

가상뱅킹서비스

98년 25개 기관 확대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웹(Web) 기반의 가상은행서비스가 내년부터는 25개 시중금융기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4일 한국통신은 보람은행, 평화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축협중앙회 등 가상은행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1개 금융기관과 협정을 체결,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시험을 완료키로 했다고 지난 11월 14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현재 14개 국내 금융기관에 가상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새로운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은행은 실제 은행점포와 같은 가상점포를 PC화면에 띄워 고객이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가상은행

서비스는 기업전용망인 COLAN과 ISDN망, 전화망을 통해 제공되며 각종 거래, 자금이체 및 조회, 상품홍보 등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통신은 보안대책이 마련되는대로 인터넷을 통해 뱅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가상뱅킹서비스에 폰뱅킹 등도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쌍용정보통신

기업은행에 인트라넷

그룹웨어 구축

쌍용정보통신이 기업은행의 본점 및 전국의 모든 지점을 인터넷으로 엮는 국내 대형 은행권 최초의 인트라넷 「스피드오피스(Speed Office : 가칭)」를 구축한다.

이 회사는 고가의 시스템 구축비용, 클라이언트 투자비용 증대, 업무 확장 및 시스템 관리의 어려움, 동시접속 이용자수의 제한, 높은 유지보수 비용 등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그룹웨어 환경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기업은행과 인터넷 웹기술을 이용한 인트라넷 「스피드오피스」의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13일 밝혔다.

기업은행에 구축될 「스피드오피

스」는 30여개의 본부 부서 및 4백여개 전국 영업점 직원 등 총 8천3백여명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규모로 전자우편, 게시판, 부서정보광장, 전자결제, 전자보고서, 설문조사, 문서함, 문헌정보 검색, 영업정보, 손익정보, 경영분석 정보 등의 신속한 전달은 물론 공유 및 활용을 가능케 해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스피드오피스」는 사용자의 PC환경을 폭넓게 고려, 윈도 95와 NT 사용자 뿐만 아니라 윈도 3.1의 사용자도 인트라넷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추가 투자없이 계정계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수 직원의 동시 접속 이용과 업무 변경 즉시 적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라고 쌍용측은 밝혔다.

LG정보통신

최적생산시스템 구축

LG정보통신은 LG-EDS시스템과 공동으로 자사 구미공장의 최적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11월 13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각 근로자가 생산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7백여대의 PC를 통해 생산계획, 실적, 원자재 입고출고 현황 등 직업 진행상황 정보는 물론 공정상 발생하

는 각종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파악,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생산 시스템을 실현한 것이다.

LG정보통신은 특히 사용 편리성 제고를 겨냥해 모든 정보를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그래픽 등의 화면으로 제공, 생산 현장부서가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직접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SDS

“유니솔루션” 시장 확대 가속화

삼성SDS가 윈도NT 기반 그룹웨어인 「유니웨어(UNIWARE)」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유니ERP」를 통합한 유니솔루션 영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지방소재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력 강화를 위해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지방로드쇼」를 개최한 삼성SDS는 11월 13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삼성전자, 다우데이터 시스템, 인텍소프트 등 30여개의 국내 유력 정보통신업체들과 유니솔루션 판매를 위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이번 공급계약을 계기로 국내시장을 주도해온 고가의 외국 패키지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비싼 가격과

사용상의 어려움으로 도입을 고려치 못했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 11월 1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컴덱스에 유니웨어와 유니ERP를 주력 소개하는 한편 98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삼성이 이번에 출품할 「유니ERP」는 총 18개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의 전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리, 통합운영할 수 있는데 특히 임원정보시스템(EIS) 부문을 웹으로 구현해 경영자의 정보접근을 쉽게 한 것이 장점이다.

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치창조형 업무지원 시스템인 「유니웨어」는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메시징, 문서관리 워크플로 엔진을 별도로 채택해 안정성이 뛰어나며 자체 양식작성기 및 문서작성기를 내장하여 한국적 업무처리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한다.

정보통신부

98년부터 전과 사용료 인하

내년부터는 휴대폰 및 PCS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전과 사용료가 분기당 기존 8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되고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용자 역시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과 사용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과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지난 11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용 무선국과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는 자가통신용 무선국중 육상이동국(위키토키)은 분기당 2만5천원에서 이동가입자 수준인 5천원으로 내리고 TRS전화는 4만5백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출력이 10MW 이하로 미약하고 기존 크드레스폰과 유사한 CT2 단말기, 승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이동무선전화 및 전과 음영지역 해소를 겨냥해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의 전과사용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용화 기지국의 경우 2개 시설자가 공동으로 구축해 이용하면 50%를, 3개이상의 시설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67%를 각각 감경해 주기로 했고 그동안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임대할 수 있었던 휴대폰, PCS, TRS 등의 단말기 임대 승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나 우 콤

“체험후 구매” ID서비스 실시
상품을 사용해본 후 구입하는 「체험후 구매」 방식이 PC통신 서비스에도 도입됐다.

나우콤은 PC통신 나우누리 ID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주일동안 서비스를 사용해본 후 가입하는 「체험ID」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료실, 연합통신뉴스속보, 유머게시판, 동호회 등 기본정보 외에 주요게시판, 플라자, 토론실, 무료 웹 DB 및 웹진퍼즐 등 특별정보도 사용할 수 있다.

「체험ID」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우누리 초기화면에서 체험ID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나우콤은 체험ID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안내와 초보자 동호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메뉴를 확대 개편했다.

손님맞이 메뉴는 나우누리에 접속한 후 ID 입력란에 Guest를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농심데이터시스템

멀티미디어교실 구축 수주

농심데이터시스템은 최근 교육부가 학교정보화를 위해 추진중인

단위학교별 「멀티미디어 교실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다음달부터 신진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프로젝트 구축에 본격 들어간다고 지난 11월 11일 밝혔다.

신진공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실」 환경이 구축되면 동영상, 음성을 비롯해 음성, 정지영상, 문자열 등 다양한 저작도구를 학습지도안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간 양방향 교육이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지난 수업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농심데이터시스템은 신진공업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교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IBM RS6000 유닉스서버 및 펜티엄 PC, LAN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향후 교육정보화사업에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멀티미디어 교실」은 VOD (Video On Demand) 기술 및 AV-NET(Audio Video-Net Work) 기술을 기존 교육환경에 접목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동영상으로 임의 선택해 볼 수도 있으며 교사가 멀리서도 학생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원격관리(Remote Control) 수업진행도 가능하게 하는 교육시스템이다. ●